

# 김치 담그기 교육도 좋지만 생계·복지 지원이 우선

## 전남 다문화가정 가족해체 실태와 대책

■ 전남에 사는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 A씨는 지난 2011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다. A씨는 남편과 사이에서 자녀 2명을 낳았다. 꿈만 같았던 결혼생활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남편은 “물 떠와라”, “리 모건을 가져와라” 등 마치 자신을 하녀 부리듯 대했다. 시어머니와 관계 역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주 갈등을 빚었다. “너는 한국에 온 이유가 뭐냐”는 시어머니의 말에 A씨는 지난해 7월 이혼을 선택했다. 아이들 때문에 고민도 많았지만 더 이상 견딜수는 없었다.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무너지는 다문화 부부도 늘고 있다. 언어 불통과 문화적 차이, 취약한 경제 여건 등에서 오는 갈등으로 다문화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수는 모두 1만1129명으로 이중 국적취득자는 3881명, 국적미취득자는 6830명이다. 나라별로는 베트남이 39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2188명)·필리핀(1511명)·일본(787명)·캄보디아(607명·태국(195명) 등의 순이다. 국제결혼으로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보금자리를 꾸민 이주여성들은 현재 의사소통과 성격차이, 한국의 가부장적 낯선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족과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기로에서 있다.

문제는 사실상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이주여성들이 이혼 뒤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거나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B씨는 지난 2012년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

## 의사소통·가부장 문화...이혼 급증 결혼가정 아이들 ‘이중 충격’ 혼란

해 이혼한 뒤 8살짜리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B씨는 전남의 한 공장에 다니면서 매달 13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보육료 내기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나이가 젊고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되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혼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자녀들이다. 지난 2014년 기준 전남 다문화 부부 자녀 수는 1만2832명(남자 6557명·여자 6275명). 이들 대다수는 일반 부부의 자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한부모 가정의 자녀의 경우 정서 불안과 경제적 빈곤을 겪으면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이 해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선 전통 문화 체험이나 김치 담그기 등 문화적 차이 해소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생계 유지나 복지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국인들의 부정적인 인식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다문화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다문화 결혼가정 자녀들이 취학기에 접어들면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점과 이혼 가정이라는 점 때문에 ‘이중 충격’을 경험할 수 있다”면서 “학교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부는 이혼 이주여성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행기자golee@kwangju.co.kr



19일 광주 서구 치평동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윤장현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위원들이 세계수영대회 성공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조직·집행위원장 윤장현 시장 선출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가 19일 창립총회를 열고 윤장현 광주시장을 조직위원장 및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임원선임, 조직위 정관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광주 서구 치평동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로즈홀에서 열린 행사에는 윤장현 시장과 김영수 문

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조직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직위원회에는 정치, 행정, 경제, 체육 등 각계 저명인사와 국제대회 전문가 등 47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설립 허가과 법인설립 등기를 추진하고 총사업비

구성, 대회시설 배치 계획 마련, 내년도 국비 74억 원 확보 등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승인을 받아낼 계획이다. 한편, 한국 수영 역사상 최초로 열리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7개국 1만5000여 명이 참가하며 7~8월 중에 29일간 열릴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8명 골고루 배정...장병완 산자위원장 유력

## 전남, 농해수위 4명 몰려...이정현 교문위원장 거론

### 광주·전남 국회의원 상임위 윤곽

20대 국회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활동할 상임위가 각 당의 내부 조율 등을 통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9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당선인 16명(광주 8명, 전남 8명)의 상임위 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김동철 광주시장위원장과 황주홍 전남도당위원장은 최근 당선인들과 중앙당과의 협의를 통해 20대 국회 상임위 배정 결과를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넘겼다.

광주는 최다선인 정전배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동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장병완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1순위로 배정됐다. 권은희 의원은 안전행정부위원회, 최경환 당선인 보건복지위원회, 송기석 당선인 정부위원회, 김경진 당선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가닥 지어졌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에 따라 국민의당 상임위원장 후보로 산자위가 배정된다면 장병완 의원이 산자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철 시장위원장은 광주·전남지역의 통회에서 “광주 당선인들의 상임위는 중복 배정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조정했다”며 “여야 원 구성 협상과 상임위 재편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부 안대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은 농어도의 특성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에 당선인들이 몰렸다. 국민의당은 황주홍 의원과 정인화, 윤영일 당선인이 농해수에 배정됐다. 국민의당 원내 사령탑인 박지원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손금주 당선인과 이용주 당선인은 산자위, 박준영 당선인은 기획재정부위원회로 내정됐다.

황주홍 전남도당 위원장은 “전남의 특성상 농해수위에 당선인들이 많이 포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 광주·전남 20대 국회의원 예상 상임위

◆ 광주	의원명
상임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주선(동남갑)
산업통상자원위	장병완(동남을)
정무위	송기석(서구갑)
외교통일위	천정배(서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김경진(북구갑)
보건복지위	최경환(북구을)
국토교통위	김동철(광산갑)
안전행정부	권은희(광산을)

◆ 전남	의원명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	박지원(목포)
산업통상자원위	이용주(여수갑)
	손금주(나주·화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이정현(순천)
국토교통위	주승용(여수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윤영일(해남·완도·진도)
기획재정부	박준영(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상임위도 농해수로 내정됐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이란 점에서 예결위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도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현재 산자위에서 교문위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의원은 3선이 되면서 새누리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란 점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의 정치적 위상이 커진 만큼 이를 자렷대로 전략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 의료인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 진행

## 주민등록 번호 유출땐 뒷자리 변경 허용

###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법안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어렵게 빛을 보게 된 일부 법안들이 눈에 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 피해가 우려될 때 해당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또 최근 사회문제로 불거진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에 대해 신변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또한, 앞으로 실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4분의 3을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각종 안전교육을 체계화하는 내용의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의 최대 현안이었던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 개발·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도 이날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탄소법은 전북에 ‘탄소 밸리’를 조성해 탄소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물적 지원을 하는 법안이다. /박지정기자 jkpark@

# 특혜 같은 혜택

# SUPER FESTIVAL

혜택 1) 5년 10만km 무상보증 업그레이드

혜택 2) RV전차특 특별지원 및 할부 프로그램

혜택 3) 개별서비스세 30% 인하

### 코란도C

[5년간 소모성 부품 무상교환 (엔진오일, 오일패드, 에어리저 / 5회)]

- 개별서비스세 3.5% 지원 (당당당)
- 월 할부금 부담 줄여주는 '국내 최초 7년 할부'로 월 최저 29만원부터!
- 최대 45% 차량가격 보장! 5년 후 중고차 반납할부로 월 최저 25만원부터!

### 코란도 투리스모

[4WD 기본장착]

- 전동식 선루프 장착지원 (당당당)
- 선수를 제로, 3.9% 저리 이자부터! Best Choice 저리할부

### 코란도 스포츠

- 10년 자동차세 28만 5천원 지원 (당당당)
- 할부기간도 할부금도 내맘대로! My Style Edge 할부로 코란도스포츠가 월 최저 약 16만원부터!

### 티볼리

- 할부기간도 할부금도 내맘대로! My Style Edge 할부로 티볼리가 월 최저 약 12만원부터!
- 8인치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증정 (당당당)

### 티볼리 에어

- 할부기간도 할부금도 내맘대로! My Style Edge 할부로 티볼리 에어가 월 최저 약 13만원부터!

### 렉스턴W

- 유류비 100만원에 5년간 소모성 부품 (엔진오일, 오일패드, 에어리저 / 5회) 무상교환까지! (당당당)
- 선수를 제로, 1.9% 저리 이자부터! Special 저리할부 36개월 (1.9%), 48개월 (2.9%)

**쌍용자동차 대리점이 참신하고 유능한 영업인력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아래 해당 판매점에 연락 바랍니다.

**광주점** : 광주중앙 529-0003

**전남점** : 순천중앙 723-7100 (061) 나주 334-2727 영광 353-9500 여수구룡 642-1400

**서광주** 383-3434

**목포중앙** 277-8000

**목포중앙** 277-8000

**영암** 852-2892

**함평** 324-3800

**광주광산** 952-3330

**순천** 745-3666

**강진** 433-3100

**광양** 761-8900

**광주첨단** 971-0990

**여수** 683-1800

**해남** 537-3100

**동광양** 791-0071

**광주빛고을** 655-4001

**목포하당** 285-7576

**장성** 395-0007

**무안** 454-0099

**동광주** 515-1900

**화순** 371-3555

**담양** 383-5811

**고흥** 835-5050

**광주양산** 673-8900

**장흥** 863-2600

**완도** 554-4545

**진도** 542-5888

구입문의